



졸업생들의 무한 에너지 ‘신구 엑스포 2014’ 디지털인쇄정보과·졸업작품전 통해 ‘아이디어 톡톡!’

신구대학교(총장 이승겸)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1·2 전시장, 산학관 광장, 복지관 지하 1층 등지에서 신구 엑스포 2014를 개최했다. 엑스포 기간 동안 디지털인쇄정보과(학과장 최재혁) 2학년 학생은 졸업작품전을 통해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다양한 작품을 공개, 방문객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글 | 조갑준 기자 kjocho@print.or.kr

직업 정보 제공 진로 탐색 비전 제시

신구 엑스포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 탐색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10월 개최된다. 이를 통해 졸업생들은 직업 교육의 성과 및 양성교육 기관의 미래 방향을 재조명하고 공감대를 조성한다. 아울러 지역 사회 및 산업체와의 지식정보 교류를 통한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엑스포를 통해 디지털인쇄정보과 졸업생들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대방출하며 젊은 창의력을 한껏 뽐냈다. 각각의 작품은 기획에서 전시에 이르는 전 과정이 졸업생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완성됐다.

3개 주제에 맞춰 교수진의 밀착 지도

전시를 위해 디지털인쇄정보과 졸업생들은 14개 조로 나눠 지난 5월부터 만 5개월을 준비했다. 물론 디지털인쇄정보과 전공 교수들이 패키지, 책자, 기타 등의 주제별로 3개조씩 전담해 밀착 지도했다.

14개 조는 각자의 관심에 맞춰 자율적으로 조직됐으며, 각각의 조는 조장의 지휘 아래 자율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며 작품을 완성했다.

과 특성 살린 패키지 ‘주목’

올해 전시된 작품 중에는 자동차와 책걸상으로 변신 및 분리가 가능한 작품과 유아용 매트에 시온스티커를 부착해 유아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학습효과도 높일 수 있는 작품이 크게 주목을 받았다. 특허를 통해 상품화가 이뤄질 수 있을 정도의 아이디어라는 찬사가 이어졌으며, 실제 방문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외 캘리그래피를 이용한 패키지 디자인 등도 상품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 방문객들의 눈을 의심케 했다. ☞



자동차로 변신하는 책걸상 세트



시온스티커가 부착된 유아용 매트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패키지 디자인